

‘목포근대건축문화유산’ 관광자원으로 효자 노릇

구)일본영사관 · 구)동양척식주식회사 등 3년동안 30억 예산 지원



구)일본영사관



구)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 근대문화유산이 관광자원으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목포는 부산, 원산, 인천에 이어 1897년 국내 4번째 개항했고 상인, 농민, 양반 지주층 등이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모여들었다. 미국 및 면화 수출항으로서도 역할을 하며 목포는 성장해갔다.

발전을 거듭한 목포는 근대적 학교와 의료기관이 전남에서 가장 먼저 생겼고 근대화의 선두도시로서

근대 문화를 전남 전역으로 전파했다. 항구도시가 누릴 수 있는 특수로 목포는 1940년대 전국 3대항 6대도시로 명성을 떨쳤다.

이에 따라 목포는 자연스럽게 다수의 근대 건축물들이 들어섰고, 구)일본영사관, 구)동양척식주식회사 등 현재까지 남아있는 당시 건물들은 근대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격상됐다

시는 근현대 문화유산이 집적된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역사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근대 건축 자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건축 자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근대역사 문화 관광벨트 조성 기본계획 및 지역 지구 지정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근대역사문화자원을 관광자원화하는 시범사업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사업성을 인정받아 올해 국가 계획에 예산이 반영돼 3년 동안 총 3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시 관계자는 “근대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활용하는 것은 미래 먹거리를 만든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에 설명하고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물만 고기만’ 해남군 수산자원 조성 박차

6억여원 투입해 종패 · 종패 방류 어민소득 증대

해남군이 남획과 이상기온 등으로 고갈되어가고 있는 수산자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종패 · 종패 방류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올해 사업비 6억 200만원을 투입, 어촌계 해역 등에 주민소득과 직접 연계되는 꼬막, 바지락, 대하, 꽃게, 보리새우, 전복,

해삼, 뱀장어, 자라 등 9종을 방류한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는 꼬막과 바지락 대하, 전복 등 6종을 하반기에는 자라, 해삼, 보리새우 등 3종의 수산종묘를 매입, 어촌계 등의 신청을 받아 장소를 선정 후 방류할 계획이다

또한 방류종묘의 생존을 위해

연안 해역의 패류 양식어장 3개소 50ha에 대해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저수지 등에 서식하고 있는 외래어종인 블루길, 베스, 황소개구리 등을 퇴치 할 수 있는 외래어종 수매사업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종패 · 종패 방류사업은 서식지 조사를 거쳐 각 연안의 생태환경에 맞는 고부가가치 어종을 선정, 방류함으로써 1~2년 후에는 실질적인 어가소득으로 이어지면서 수산자원 조성과 소득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곡성군, 감 전정기술 현장교육 열기 ‘후끈’

내달 2일까지 감 농업인작목반 순회 현장교육 시행

곡성군은 고품질 감 생산을 위한 ‘감’ 단계 전정 현장 교육을 2월 20일부터 3월 2일까지 각 읍·면 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교육에서는 감나무 단계 전정 시기에 맞춘 전정 요령과 시기별 대상 병해충에 대한 방제약제 소개 및 살포횟수, 감나무 동계 및 하계 관리요령 안내 등의 내용으

로 진행된다.

목사동면 감 농업인작목반 유재호 반장은 “이번 현장교육을 통해 효율적인 감 단계 전정 노하우를 공유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감 전정 기술을 직접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에서 군 관계자는 “감은 2월 중순 이후가 전정의 적기이지만 올해는 우리 지역의 최저온도



가 -17℃까지 내려가는 일이 잦아 결과지의 동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농가에서는 평년 대비 결과지 수를 더 남길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곡성=김광휘 기자

영암군 청소년 진로개발 프로그램 인기

제과제빵 · 단계별 코딩교육 28일까지 총 5회 운영



영암군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헬로! 친구들!” 프로그램이 봄방학을 맞은 지역 청소년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올해부터 중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발 빠르게 마련한 ‘헬로! 코딩’과 만족도가 높았던 직업체험 ‘헬로! 파티쉐’ 두 분야로 마련되

었으며 모집단계부터 대기가 넘쳐날 정도로 호응을 받았다.

‘헬로! 파티쉐’는 청소년들이 제과제빵에 관심이 높은 만큼 지속적인 흥미를 유발하여 파티쉐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컴퓨터 소프트웨어(SW)의 구성 원리와 기초적 제작 기능을 배우는 ‘코딩’은 컴퓨터 언어를 단계별로

구성하여 청소년들에게 논리력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으로 오는 28일까지 총 5회기로 운영되고 있다.

영암중학교 신입생 안대현군은 “평소 관심이 많았던 코딩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겨서 기쁘게 참여하고 있으며, 계속 빠져드는 묘한 매력의 학문이다”고 전했다.

한편, 군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들의 문화 감수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주제로 상반기 문화교육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주요프로그램은 우물썰개, 어린이발제, 기초비독, 주산·압산, 요가, 미술, 탁구, 악기 교실 등이며 특히 문화교육 프로그램은 전년도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와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기존 인기 과목 및 새로운 과목을 선정하여 청소년들의 욕구를 적극 반영하였다.

수강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3월 9일까지 수련관으로 방문하여 수강신청을 하면 된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청소년수련관 ☎470-1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암=조대호 기자

강진군, 다산공직관 청렴교육 개선방안 토론

평가위 개최...다산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발전방안 모색

강진군 다산기념관 다목적실에서 다산공직관 청렴교육 발전방안모색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위원으로 위촉된 12명에 대해 위촉장을 전달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다산공직관 청렴교육 추진성과를 공유했다. 2018년 교육 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진군이 추진하고 있는 다산공직관 청렴교육은 전국 공직자를 대상으로 다산 청렴과 애민사상을 강조한 다산 정약용의 삶과 사상을 깊이 있게 성찰하는 시간을 통해 공직

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과 목민관의 자세를 배우는 것은 물론, 공직에 대한 소명의식과 자기성찰의 기회를 갖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전국 공직자의 필수교육 코스로 각광을 받으며,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도에서부터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전국에서 모여들었고, 직급도 2급 고위공무원부터 9급 신규직원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날 청렴교육 발전방향으로는 다산체험 프로그램 다양화, 교육생 참여프로그램 개발, 푸소(FU-SO)체험 시설 개선 등이 논의됐다.

이주연 위원은 “다산공직관 청렴교육은 7년 동안 유지한 그간의 노하우가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으로 잘 추진되어 오고 있지만, 시대의 다양한 변화에 대응해 재미와 감동을 줄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는 오는 3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박 3일 과정으로 다산공직관 청렴교육과 대도시 공무원청렴푸소체험 정규 과정을 각각 2회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다산체험 프로그램은 당일, 1박 2일, 2박 3일 과정으로 매 기수 40명 정원으로 맞춤형교육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강진=김영일 기자

곡성군, 임산부 건강 우리가 책임진다

곡성군 보건의료원(원장 김영락)은 지난 20일 목포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와 간호사가 방문하여 2월 중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산부인과 접근도가 낮은 우리 지역의

임산부에게 산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산부의 불편과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찾아가는 서비스로 우리군 산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날은 초음파 진단기 등 최신 의료장비를 갖춘 이동버스가 보건

의료원 광장에서 3명의 임산부들에게 초음파, 임신전후 풍진검사, 갑상선검사, 임신당뇨검사를 시행하여 검사 등 산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매월 2회 둘째 주와 넷째 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운영하며 곡성에 거주하는 임산부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곡성=김광휘 기자

◆ 광주 지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광산 010-5604-6533	송하 010-8620-1925
중암 010-3365-6200	학운 010-4166-1810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금호 010-6636-2775	상무 010-5359-7406	광암 010-6634-5084	양산 010-2646-3205
화정 010-8438-3819	봉선 010-9474-0212	진월 010-2615-8374	오치 010-7532-3313
			북구 010-4601-2080
			동운 018-611-7751
			용봉 010-4601-2080
			두암 010-2684-6091
◆ 시 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완도 010-9578-5900	장성 010-5287-7711
담양 010-3629-9016	무안 010-5234-2313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광양 010-5604-6981	여수 010-6655-8503	함평 010-3625-3160
영광 010-3611-3081			화순 010-2077-6464
			곡성 010-3615-1088

지역언론의 마름길을 열어줍니다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 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